

## ‘만문명답’ (박용만이 묻고 이재명이 답하다)

### 21일과 23일 ‘이재명 TV’ 통해 전격 공개

- 총 2부에 걸쳐 공개 ... 21일 공개되는 1부 ‘우리가 직면한 현안 문제’ 주제 47분 가량 영상 구성
- 미중 갈등 및 외교 현안, 탄소중립, 사회양극화 등 각종 사회 현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 담겨
- 유력 대선 후보와 재계를 대표하는 경제인 간 소통 ... 이 후보 요청으로 박영선 前 장관 통해 성사

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박용만 前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대담 ‘만문명답 (박용만이 묻고 이재명이 답하다)’ 이 21일과 23일 총 2부에 걸쳐 유튜브 ‘이재명 TV’, ‘텔레민주’ 채널을 통해 전격 공개된다.

앞서 이 후보와 박 前 회장은 지난 14일 재단법인 ‘같이걷는길’ 사무실에서 2시간 가량의 대담을 통해 코로나 위기 극복, 양극화, 4차 산업혁명, 규제 개혁, 청년 일자리 등 경제 및 사회 분야의 각종 현안에 대해 폭넓고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한 바 있다.

21일 공개되는 1부는 총 47분 가량으로, ‘만문명답’ 이라는 제목 그대로 박 前 회장이 각종 사회 현안에 대한 견해를 묻고, 이 후보가 답변하는 형식으로 구성됐다.

‘우리가 직면한 현안 문제’ 를 주제로 한 1부 방송에서 이 후보와 박 前 회장은 ▲미중 갈등 및 외교 현안 ▲탄소중립 위기인가 기회인가 ▲사회 양극화에 대한 방안 등 각종 사회 현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.

앞서 이 후보는 평소 박용만 前 회장에 대해 ‘존경하는 기업인’ 이라 밝혀 왔으며,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당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었던 박 前 회장과 ‘경기도기업규제 발굴·지원을 위한 업무협약’ 도 체결하는 등 좋은 인연을 맺어왔다.

이에 이번 대담 역시 이 후보가 경제계 신망이 두텁고 평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 온 박용만 전 회장의 견해를 듣고 의견을 나누기 위해 박영선 전 중기부 장관을 통해 먼저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. (끝)